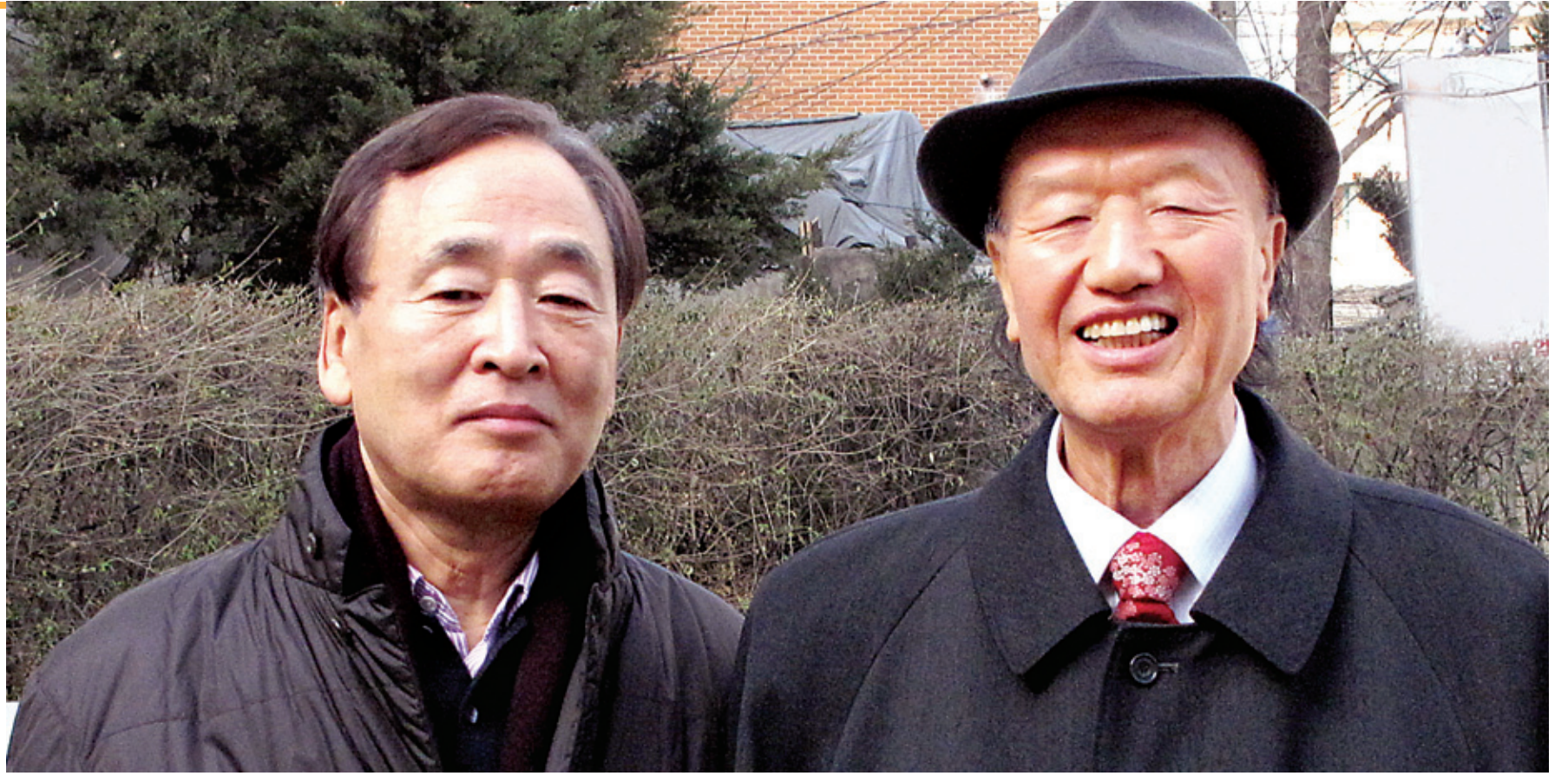


“50년 우정으로 거사 불교중흥”

본각선교원 불교강좌·법회 이끄는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와 박준수 변호사



서울법대 불교학생회에서 청담 스님 법문을 듣고 발심한 고준환 거사(사진 오른쪽)와 박준수 거사는 50년 도반이다. 교계에서 오성과 한음으로 알려진 두 거사는 거사 불교중흥에 자신의 모든 것을 회향하겠다는 발원을 실천하고 있다.

고준환 경기대 종신명예교수(69·법명 아하)와 박준수 변호사(69·법명 선재)는 서울대 법학과 61학번 동기·동창이다. 50년지기 도반인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거사불교활성화’ ‘불교중흥’에 노후를 바치겠다는 서원을 걸고 본각선교원에서 만났다. 본각선교원은 불자 뿐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불교강좌와 법회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본각선교원(원장 고준환)은 고준환 교수가 2011년 4월 설립 취지를 선포하고 6월부터 개강한 불교학당이다. 이곳에서 고준환 교수와 박준수 변호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묘법연화경>, 목조선 비판 등 다양한 주제의 불교법회를 열고 있다.

50년 전 고교수와 박 변호사는 1961년 부처님오신날 서울대 법과대 불교학생회에 초청한 청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심취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두 사람은 불교로 인해 막연한 사이가 됐다.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고준환 교수는 경기 화성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의구심 많은 소년이었다. 서울대 1학년 시절, 고 교수는 청담 스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는 법문을 듣고 감화돼 불교에 귀의했다. 이후 서울대 법과대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다 불교의 청년화·대중화·지성화의 필요성을 느꼈던 그는 흥도 스님(일명 방울 스님)과 의논한 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설립했다.

대학 졸업 후 고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10년간 언론인으로 생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준환 교수의 기자생활은 1974년 유신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가담하고 기자노조 설립을 주도하다가 해직을 당하면서 끝났다. 고 교수는 다시 전공공부를 시작한 끝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여 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고준환 교수의 불교사랑은 그칠 줄 몰랐다. 고 교수는 1988년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을 지냈다.

고준환 교수는 청담 스님뿐만 아니라 탄허 스님과 설송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았다. <화엄경>은 탄허 스님에게, <법화경>은 설송 스님에게 <금강경>은 백성욱 박사에게 배웠다. 또한 수많은 스승들로부터 불법을 배우면서 초월명상과 아바타 수행도 했다.

“나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대불련 창립, 교불련 회장, 자유언론 투쟁 하고 일만 많이 벌여 냈지. 선재(박준수 변호사)는 조용히 공부만 하는 초지일관된 그런 사람이예요. 이 친구 한테

“마음은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청담 스님 법문 듣고 불교 귀의
탄허·설송 스님 백성욱 박사에게
경전 공부·수행하며 우정 다져

초월명상도 배우고 선 공부 할 때마다 서로 조언도 하고, 선재한테 배운 게 참 많아요. 나한테는 춘광(春光)이야. 봄 별 같은 사람이지.”

젊은 시절을 회상하던 고 교수는 박준수 변호사의 칭찬을 늘어놓는다. 박준수 변호사는 “자네는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라며 겸손을 표했다.

박준수 변호사는 서울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과묵하고 정갈한 성격이었던 박 변호사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는 등 철학적인 소년이었다. 그러다 서울대에 입학해 고준환 교수와 함께 청담 스님과 탄허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준수 변호사는 2000년까지 판사를 역임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불자 법조인을 위한 신행동적을 이끌기도 했다. 박준수 변호사는 법조인 모임인 ‘자각타’를 만들어 신행동적을 이끌었다. 이밖에도 그는 후배 불자 법조인들에게 불교교리는 물론 불자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등을 강연했다.

고준환 교수는 “박 변호사는 스승들과 범거량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박준수 변호사는 한국거사불교의 대가 백봉 김기추 거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무심선원의 김태완 거사의 법문을 들으며 불교공부에 매진했다.

같은 전공을 공부했지만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두 사람은 이제 고희(古稀)에 접어들다.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불사에 전념할 계획이다.

젊어서 미처 다하지 못한 부처님일을 마치기 위해 고준환 교수는 강원도 철원에 3만여 평이 넘는 부지를 사들였다. 본각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거사불교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거사불교중흥에는 많은 이들이 뜻을 보태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또 다른 50년지기 친구 김원수 교수(홍익대, 바른법연구원 이사장)도 있다. 서울대 61학번 동문인 김 교수는 교수불자협의회 창립멤버이다. 김원수 교수는故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에 따라 40여 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금강경>독송을 해왔다. 8년 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설립해 부처님 가르침을 펴고 실천하고 있고 자신의 집을 개조해 ‘하심정(下心亭)’이라는 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김원수 교수는 본각선교원에서 ‘생활 속의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준환 교수는 “도반들이 마음을 모아준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이제 수강생만 모집하면 된다”고 웃었다.

고 교수는 “현대는 생명과학 등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120세 되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수 십년을 놀다만 갈 수는 없으니, 적어도 제가 대중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며 “거사불교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와 세계불교를 중흥하는 것이 목표다. 깨달음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수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모았다”며 “본각선교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불성이 본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초부터 응용불교까지 한번에

본각선교원 1월 1일부터 개강...주말법회 무료

본각선교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불교강좌와 시각(始覺)법회를 개최한다. 경전위주의 기초교리와 함께 응용 불교학 강의가 매일 진행된다.

시각법회는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진행된다. 박준수 변호사, 고준환 교수가 1시간씩 번갈아가며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묘법연화경>, 목조선 비판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불교강좌는 >마음과 수학(임종록 교수 월 오후 5시) >유마경과 승만경(이원주 교수 월 오후 7시) >천문지리(동양학)김문웅 선생 화 오후 7시) >세계7대종교와 평화(송부웅 선생 수 오후 5시) >유불선과 한시(최동락 법사 목 오후 2시) >생활속의 금강경(김원수 교수 목 오후 5시) >영어 법화경(고준환 교수 금 오후 5시) 등으로 구성된다.

본각선교원의 불교강좌 특징은 탄탄한 교수진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임종록 교수(한양대 수학과), 김문웅 자연지리학회장을 비롯해 백성욱 박사의 제자인 김원수 홍익대 명예교수(바른법연구소 이사장)가 참여한다. 또한 3월에는 우희중 교수가 참여해 ‘불교와 생명과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에 5만원이며 주말 법회는 무료이다.

(02)762-4848 (cafe.daum.net/BonGagAcademy)



강의를 듣고 있는 본각선교원 수강생들



<묘법연화경> 법문을 펼치는 고준환 교수



<임제록>을 주제로 법문하는 박준수 변호사

이나는 기자 oasis1963@hanmail.net

특허등록(30-0607637)

法性偈 十波羅密圖 制作·普及 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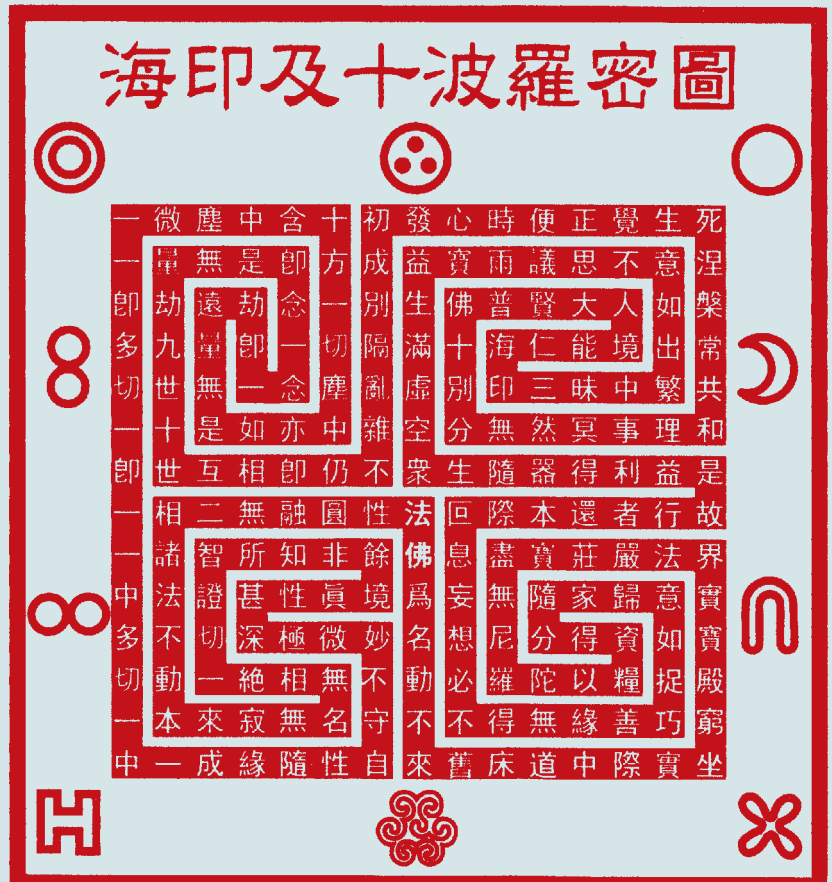
법성도는 대승경전인 화엄경 심지요체정법입니다
혹 사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적보다는 천만배 이상
영험과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법성도는 楮紙(딱종이)에 槐黃紙를 수공업으로 염색하여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의 포교용으로 염가 제작하여 드립니다.

예수재용, 호신용, 액자용, 복장 점안용 등
사양에 주문제작합니다.

법성원 전화 051)532-1113, 010-8258-9963



法性圖所持者 成就一切萬法 消滅一切諸障礙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만법이 성취하고 일체마장이 소멸한다.